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시리즈 5.

“잠에서 깨어남의 영성”

(누가복음 22:39-46)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듭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잠이란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자 철저한 ‘내려놓음’의 시간입니다. 우리 몸 역시 잠든 사이에 피로를 회복하고, 아이들은 키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잠든 사이에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선물들을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잠을 통해 우리 몸을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종류의 잠이 있을까요?

첫째, 본능적인 잠입니다.

육체적인 잠은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유해 물질을 해독하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현대 사회에 수면제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육체적인 쉼을 누리지 못하고 불면의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는 안타까운 증거입니다.

둘째, 윤리적인 잠입니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능력은 뛰어나지만 도덕적, 윤리적 흠결로 인해 낙마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윤리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는 삶이 바로 윤리적 수면 상태입니다.

셋째, 영적인 잠입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 바로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마땅히 영적으로 깨어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 왕궁 옥상을 거닐며 나태함에 빠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요나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면 서도 위기를 깨닫지 못한 채 육신은 자고 있었고, 결국 이방인 선장의 책망을 받으며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믿는 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존 번연의 명작 『천로역정』에는 순례자가 십자가 언덕을 지나다 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 깊이 잠든 세 명의 사람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돛대 위에 누워 침몰하기 직전인데도 낭만을 즐기듯 잠들어 있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영적으로 잠든 우리의 세 가지 모습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1. 단순함과 우매함

첫 번째 잠든 사람의 이름은 '단순함'과 '우매함'입니다. 이는 눈앞에 닥친 위험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각 증상이 없는 환자와 같습니다. 누군가 영혼을 깨우려 해도 "뭐가 위험하다고 난리냐"며 귀찮아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해 영적 분별력을 잃은 베드로는 결국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는 경거망동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추어 보고 우매함에 빠져 설부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2. 게으름과 나태함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순례자가 깨워도 "조금만 더 자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주변에 어떤 위기가 닥치든 상관없이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게으름은 결국 영혼의 빈궁함을 몰고 옵니다. 예수님은 재능을 땅에 묻어둔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을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부지런히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3. 자고함과 교만함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자고함'과 '교만함'입니다. 그는 잠을 깨우는 순례자에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며 거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꿈쩍한 오만입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기 전, 갓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잠든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매함과 게으름, 그리고 교만함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이제는 흔들어 깨워야 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먼저 깨우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잠들어 있는 이웃들의 영혼을 깨워 주님과 함께 생명의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